

20년 버틴 독 결국 터져... 값싼 외국쌀 밀려온다

쌀시장 전면개방 예고 파장

쌀 관세화는 쌀을 전면 수입하는 대신,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쌀 수입 개방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중 FTA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세율에 따라 국내 쌀 시장이 붕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쌀 관세화는? = 쌀 관세화는 사실상 전면 쌀 개방을 뜻한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농산물시장은 1995년부터 '관세화'를 통해 개방됐다.

다만 UR 협정문은 특정 국가의 식량안보나 환경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품목은 일정 기간 관세화를 미룰 수 있는 '특별대우', 즉 관세화 유예를 인정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했다. 이를 관세화 유예라고 한다.

한국은 UR 농업협상에서 2004년까지

국내 쌀 생산기반 무너지고 식량주권 마지막 보루 붕괴 FTA 협상 불리하게 작용

쌀시장 개방을 보류한 데 이어 2004년 쌀 협상을 통해 한 차례 더 개방 시점을 10년 뒤로 미뤘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매년 2만t 가량 늘리기로 인해 당사국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가 확정되면 값싼 외국쌀에 물리게 되는 관세율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예를 들어, 국산 쌀값이 1kg에 1000원이고 외국쌀이 200원이면 그 차액인 800원, 다시 말해 400%가 관세상당치다. 200원짜리 외국쌀이 관세 400%를 물고 한국쌀을 밟으면 국내산과 같은 1000원이 되는 원리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의 상업용 쌀 수입실

적이 없어 어떤 가격을 국제가격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상당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내 학계에서 예측하는 우리 쌀 관세상당치는 최소 300%에서 최고 700%로 편차가 크다.

▷다른 방법은 없는가? = 정부가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WTO 규정이 까다롭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쌀 관세화 추가 유예를 신청한 필리핀의 경우 ▲의무수입물량(현재 35만t) 증량 ▲세율(현재 40%) 인하 ▲국별 쿼터 인정 ▲쌀 이외의 타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를 받고 있다.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더라도 쌀 수입물량은 늘 수밖에 없고, 세율이 인하돼 더욱 값싼 외국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쌀 개방을 늦추는 대신, 다른 품목에 대한 개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만성적인 쌀 부족국가인 필리핀의 경우에는 의무수입물량을 늘려도 수급 관리에 부담이 없지만 쌀을 자급하고 있는 한국은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면 그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

일부 농업연구소 등이 주장한 스탠드스틸(Stand-still)로 불리는 현상유지도 거론되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가 있다. 현상유지는 계속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해마다 늘려야 하는 의무수입물량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더 없이 좋은 방법이지만 법률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예상되는 피해는? = 쌀 전면개방은 국내 쌀 농가의 직접적인 타격과 함께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을 언제까지나 한국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없고, 쌀 시장은 개방하면서 다른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산과 외국산 쌀가격을 비교해보면, 국내산 쌀은 미국 쌀에 비해 약 1.8~2.7배, 중국 쌀에 비해 2.0~3.3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쌀 전면개방 후 관세율이 400% 선에서 정해지면 국내산 쌀이 외국 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은 당장은 농가 피해가 크지 않겠지만 언제든 관세율이 내려가 외국 쌀이 국내 쌀보다 더 싸질 수 있어 외국쌀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한·중 FTA 등 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외국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에서 쌀 관세 인하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농민단체 등 거센 반발 예상 = 쌀 수입 문제는 찬반 논쟁이 뜨거워 쇠고기 수입 갈등보다 더욱 거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쌀은 농가의 생계와 직결

되며, 국가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촌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400% 관세를 받아들일 경우, 당장은 농가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중 FTA 등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쌀 관세 인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르면 2~3년 안에 관세가 무너지고 외국쌀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쌀 관세화 설명회에 반발하고 있는 농민단체의 집단 행동도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개방만 운운하는 것은 농민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조만간 농민단체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쌀 협상 주요 일정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한국 쌀시장 개방 10년간(1995~2004년) 유예
2004년	WTO 한국 쌀시장 개방 10년간(2005~2014년) 추가 유예
2009년	농업협정위원회 중도관세화 논의 착수(결론 못냄)
2013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등 현상유지론(스탠드스틸) 주장
2014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에 '현상유지론 불가능' 보고
2014년	6월 20일 농식품부 쌀 관세화 공청회 개최
2014년	6월말 관세율 등 핵심사안 국회 보고(예정)
2014년	9월 WTO에 수정양허표 제출(예정)



전면개방 앞둔 쌀값 끝모를 하락

20개월만에 17만원대 무너져... 전남지역은 15만원대

쌀 전면 개방은 국내 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국내 쌀과 저렴한 외국 쌀 간의 가격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관세율이 무너지면 언제라도 쌀값이 폭락할 수 있다.

실제, 쌀 전면 개방을 앞두고 국내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개월 만에 17만원대(이하 80kg 기준)가 무너졌다. 현재 재고량도 많고, 쌀 개방 대신 들어온 의무수입물량도 쌓여있어 을가를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전남농협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산지 쌀 가격은 15만9000원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도 16만9000원으로 지난 4월 17만1064원, 지난 5월 16만9917원에 비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17만5279에 비해 6279원이나 하락한 수치다.

특히 산지 쌀값이 16만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농협은 쌀값 하락의 이유로 지난해 생산

된 쌀 재고량(지난 5월 기준)이 62만6000t에 달하고, 쌀 판매량도 지난해보다 7.1%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햅쌀이 쏟아져나오는 오는 10월에는 더욱 쌀값이 폭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의 국내산 재고량과 의무수입물량(40만9000t)이 더해진다면 오는 6월 쌀 관세화가 확정되면 농가의 불안 심리가 커져 투매 현상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쌀 관세화 결정에 따라 자국의 쌀 가격이 폭락한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3년 쌀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한 대만의 경우, 값싼 외국쌀이 대거 밀려들어와 전년에 생산했던 쌀 가격이 폭락했다. 값싼 외국산 쌀 수입에 놀란 농가는 물론 유통업체마저 서둘러 쌀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협도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10만t을 추가 수매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과 양파 재배농민들이 19일 농협 전남본부 앞에서 양파와 마늘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작년 절반 독... 양파·마늘 가격폭락 대책 세워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남도청앞 야적시위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과 양파 재배농민들은 19일 양파와 마늘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전남도청과 농협 전남본부 앞에 1t 트럭 11대분의 양파를 쌓아두는 야적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20kg에 1만3000원까지 나갔던 양파 농협 수매가격이 올해 7000원까지 폭

락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로, 일반적인 양파(20kg) 도매가는 4500~5000원으로 급락한 상태다.

마늘 역시 사상 처음으로 1kg당 2000원 이하에서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전남도도와 일선 시군도 긴급 수입제

한 조치와 최저 예시가격 현실화 등의 대정부 건의안을 내고 지역 농협은 양파와 마늘 수매가 담합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날 마늘·양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수매 조기 실시와 수매량 확대, 수매가격 현실화 등을 농림축산식

품부에 건의했다.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은 8095ha로 지난해보다 9% 줄었고, 양파는 1만1035ha로 9% 늘어났으며, 따뜻한 기온으로 마늘 생산량은 평년 대비 3%(9만5000t) 감소, 양파는 4%(69만2000t)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ol@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예 약 : 061)536-100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www.oceanocc.co.kr

선불할인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시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시고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선불 카드 할인표 -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	기명1인	기명1인	무기명1팀(전원)
주중/주말	40%	50%	40%

공통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입장료	주 중	66,000	18홀 기준
	주말(공휴일)	99,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1 6월 카트로 면제(4인18홀 라운딩시)
Event2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2만원/주말4만원(카트로 포함)

구매문의 061-536-3952